

최후의 대검거: 우라카미 요반쿠즈레와 나가사키 각지의 탄압

파리 외방 전교회의 은밀한 선교 활동

신도 발견 후, 나가사키 부교 사무소의 감시를 피해 우라카미무라를 비롯한 고토 열도 등 나가사키 각지에서 기리시탄 취락의 지도자들이 오우라 천주당을 방문했습니다. 또한, 선교사들도 각 취락을 은밀히 찾아가 포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잠복 기리시탄이 다수 거주했던 우라카미무라에는 성 마리아당, 성 요제프당, 산타 클라라당, 산 프란치스코 자벨리오당 등 4 개의 비밀 교회당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라카미 요반쿠즈레

1867 년, 우라카미무라에서는 보리사(菩提寺)인 쇼토쿠지 절의 승려들이 아닌 기리시탄들이 직접 시신을 매장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결국에는 지역의 잠복 기리시탄이 촌장에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리시탄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밀정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정보는 에도에 보고되었습니다.

1867 년 6 월, 제 125 대 나가사키 부교 도쿠나가 이와미노카미 마사요시는 비밀 교회당으로 170 명의 부하를 보내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던 다카기 센에몬을 비롯한 68 명을 포박했습니다. 이후에도 체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투옥된 사람에게는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프러시아 영사를 비롯한 각국 영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부교 사무소에 항의했습니다. 프랑스 공사가 도쿠가와 막부의 마지막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와 직접 교섭한 결과, 기리시탄에 대한 엄격한 감시는 변함이 없었지만, 감옥에서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탄압

기리시탄에 대한 혹독한 처우는 우라카미무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1868~1912) 초기에 걸쳐, 소토메와 고토 열도 등 각지의 기리시탄 공동체는 탄압을 받았고, 체포된 기리시탄에게는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습니다(고토에서의 탄압은 고토쿠즈레라고 불립니다). 에도 막부가 메이지 정부로 바뀐 후에도 그리스도교에 대한 철저한 신앙 금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호가 메이지로 바뀐 첫해인 1868 년 11 월, 고토 열도의 히사카지마 섬에서는 그중에서도 매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야노사코’라고 불리는 약 20 m²의 공간에 200 여 명의 기리시탄이 8 개월간 밀집된 상태로 갇히는 잔혹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유폐를 당한 기간 동안 42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탄압을 알게 된 영국 공사는 1870 년 실태조사를 위해 고토를 방문했습니다.

‘다비(旅)’ 마을 전체의 유배

1868 년, 새롭게 규슈 진무(鎮撫) 총독에 부임한 사와 노부요시는 부하인 이노우에 가오루와 함께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우라카미 기리시탄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전회의에서는 우라카미 기리시탄의 마을 전체에 유배를 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가사키에 파견된 태정관 참의(太政

官參議) 기도 다카요시는 중심인물 114 명을 하기, 쓰와노, 후쿠야마 번의 각지로 유배했습니다. 우라카미무라의 기리시탄에 대한 이 같은 처분은 서양 제국에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이윽고 심각한 외교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1870 년 1 월에는 남성 700 명과 이들의 가족까지 유배되었습니다. 총 3,394 명에 이르는 우라카미 기리시탄이 20 곳의 번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된 기리시탄들은 각지에서 개종을 강요당하고 고문을 당하거나 중노동에 처해졌습니다. 메이지 정부에 대한 각국의 지속되는 귀환 요구와 치우 개선 요구는 무시되었습니다. 이후 약 5 년간 이어진 고난을 '다비(여행)'라고 불렀습니다. 이 같은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신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유배지에서는 613 명이 사망했으며, 2,911 명만이 우라카미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1

막부 말기의 우라카미무라 야마자토 약도

그림 2

(왼쪽) 다카기 센에몬 초상화

(개인 소장)

(오른쪽) 정부의 밀정이 기록한 다카기 센에몬의 저택 내 성 요제프당 평면도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어느 날 밤, 제 126 대 나가사키 부교 가와즈 이즈노카미 스케쿠니가 투옥 중인 다카기 센에몬을 다테야마 관청(지금의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이 있는 자리에 위치)의 대강당으로 불러내어 개종하도록 설득했다. 센에몬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나가사키 역사 문화 박물관)

그림 3

구스하라의 기리시탄 감옥

(미이라쿠 교회 자료관)

1868 년에 발생한 기리시탄 탄압에서는 고토 열도의 후쿠에시마에 있는 가옥에 33 명의 기리시탄을 집어넣었다.

그림 4

1868 년과 1869 년에 기리시탄이 유배된 장소

첫 번째 숫자는 1868 년, 두 번째 숫자는 1869 년에 유배된 사람의 숫자를 나타낸다.

() 안의 숫자는 사망자 수.